

발행일 2012년 3월 20일 | 발행처 지역발전위원회 | 발행인 홍철 | 편집인 한영주 | 편집위원회 권원용(위원장) · 김선희 · 김현호 · 송미령 · 송우경 · 이원섭 · 오재학 · 정창무 | 편집간사 김일현 · 김순주 | 등록번호 12-B552531-000006-08 | 주소 도시및지역계획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303호 | 전화 02-538-3692 | 팩스 02-3453-2407 | 이메일 kepsi2010@gmail.com | 디자인 · 인쇄 (주)코리아프린테크 02-2264-3325

Contents

권두언

특집 I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특집 II

일자리 창출 중심의
신지역산업 발전전략

특집 III

광역경제권별 2단계
선도산업 육성계획

인터뷰

알기 쉬운 지역발전정책

특집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일자리 창출

04 활기찬 지역경제, 국가경쟁력의 열쇠

지역발전 국내사례

지역발전 해외사례

지역발전과 사람

기고

통계로 본 지역경제

서평

포토에세이

독자광장

52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장영철/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주무관

54 도농교류협력사업

문대곤/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2팀장

56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조경수/진도군청 수산지원과 담당자

58 클린하우스, 청정제주의 디딤돌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일자리 창출

권 두 언

1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2 일자리 창출 중심의 신지역산업 발전전략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육성정책 방향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확대 개편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3 광역경제권별 2단계 선도산업 육성계획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활기찬 지역경제, 국가경쟁력의 열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스톡홀름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벗어난 지역에 활기로 가득찬 도시가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는 에릭슨, IBM 등 굴지의 글로벌기업을 포함한 1,100여개의 IT기업이 입주해 있다. 또한, 2만4천여명의 IT고용인력과 6천여명의 대학생, 연구원들이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인구 9백만명의 작은 나라 스웨덴을 세계적인 IT강국으로 키워낸 심장부가 바로 이곳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이다.

국경이 사라진 무한경쟁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지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핵심 주체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지역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도입하였고, 선도산업 육성, 인재 양성,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역경쟁력의 원천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인식 아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응한 2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지역 기술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선도기업의 우수인력 고용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지역산업 정책이 인재양성보다는 장비, R&D센터 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결과 고용창

정부는 지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서 일하고 성장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일자리 창출과 인재 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기반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선정되었던 광역선도산업에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을 더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지역 기업들이 우수한 R&D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채용조건부 R&D를 도입하는 등 지역 R&D와 고용간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업연구소의 입주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과 대학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

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취업을 앞둔 지역인재들에게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스킨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의 판소리는 고수와 소리꾼이 한 쌍이 되어 공연을 한다.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대학·시민들은 소리꾼, 중앙은 반주와 장단을 제공하는 고수와도 같다. 신명나는 판소리 한마당처럼 중앙과 지방이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을 우수한 인재가 커가는 곳, 국내외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변모시켜 나갔으면 한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성공 또한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촉진자(facilitator)이자 든든한 지지자(support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



추진배경과 광역경제권정책의 의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은 MB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이다.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은 것 자체는 그동안 국토계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광역권을 설정하여 국토개발에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세계화 속에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접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 광역시와 광역도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광역경제권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그동안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분절되었던 경제·산업적 연계 관계를 복원하여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의 선도 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시·도 단위로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과 자원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확대하여 기능을 특화하고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기존의 시·도 단위 지역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광역경제권 정책은 수도권 단일의 성장엔진에서 벗어나 국가 내에 복

▶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지역주도 통합거버넌스 개편(안)



